



제 폰은 IP68 등급입니다

한 줌 흙으로, 흩날리는 재로 돌아가야 하는 미천한 존재인 우리의 나약함을 깨달으며 시작하는 사순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이 받으신 세 가지 유혹에 대해 전합니다.

상징성 짙은 40주야의 단식을 끝낸 주님 앞에 유혹자는 빵과 명예와 권력의 달콤함을 내밉니다. 저라면 낚시바늘 숨어있는 지렁이인 줄 모른 채 호숫가 먹성 좋은 베스마냥 한입에 꿀꺽 삼킬 유혹을 주님은 이겨내십니다.

물론 유혹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혹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유혹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선악과를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빵을 고를지 하느님의 말씀을 택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혹당함과 선택할 수 있음은 나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음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시간이 선택의 기로이며 유혹의 순간입니다. 또한 유혹은 처음부터 거창하게 부담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 “이 정도 쯤이야!” “나만 그런가!” 하는 식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서있다가 보면 앉고 싶고, 앉아있다가 보면 눕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유혹자는 처음부터 소를 흠치라 하지 않고 작은 바늘 하나쯤은 가져도 된다고 현혹합니다.

그래서 유혹은 늪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발바닥이 젖고, 얼마 뒤에는 발목 깊이 정도로 빠져들어도 위험을 느끼지 못합니다. 점점 깊이 빠져들수록 자각하지 못하거나, 이 정도는 언제든 빠져나올 수 있다고 자만하다 마침내 늪 바닥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IP68, 요즘 휴대폰이나 스마트워치의 방진 방수 성능입니다. 물론 제 폰도 보호등급은 IP68의 최신형 폰입니다. 앞자리 6은 먼지가 흡입되지 않는 일상 전기 전자제품의 최고 방진 성능을, 뒷자리 8은 1.5미터 깊이의 수심에서 30분 정도 잠겨 있어도 물이 스며들지 않는 방수 성능을 뜻합니다. 과거 휴대폰의 물리적 방수 등급이 4나 5 정도였을 때에는 잠시 물에 젖는 정도는 견디어 내지만 실수로 물에 빠트리면 낭패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유혹의 비에 젖기도 하고 현혹의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유혹에 대항하는 우리 신앙의 등급이 3 이하에 머무른다면 사소한 유혹에도 걸려 넘어질 것이고, 4나 5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이런저런 일상적 유혹을 잘 견디어 내다가도 순간의 실수 한 번만으로도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8단계 경지의 유혹에 대한 저항력을 지닌다면 좋겠지만 적어도 6이나 7 정도의 유혹 내성은 지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폰이 IP68이라면 악에 대한 저항성과 유혹에 대한 내성도 68등급에 가까워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나의 의지, 나의 노력만으로는 분명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 유혹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가 아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기를 청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정진국 바오로 신부 | 양덕동본당 주임

주일 진례

제 1 독 서

창세 2,7-9; 3,1-7

화 답 송

◎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2 독 서

로마 5,12-19 또는 5,12,17-19

복 음

마태 4,1-11

시노달리타스 여정인 사순 시기의 수덕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태오와 마르코와 루카의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변모에 관한 복음이 해마다 사순 제2주일에 선포됩니다. 사순 시기에 우리는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과 더불어 자기 수련으로서 수덕(asceticism)의 특별한 체험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순 시기의 수덕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십자가 길로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도록 은총으로 북돋워지는 하나의 임무입니다. 우리가 스승님을 깊이 알고, 사랑 안에서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줌으로써 성취된 하느님의 구원 신비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범속과 허영을 멀리하고 그분께서 외떨어진 높은 곳으로 이끄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타볼 산에 올라갔듯이, 한 분이신 스승님을 모시는 제자로서 같은 길을 함께 나아가기에 우리의 사순 여정은 ‘시노달리타스’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곧 길이시라는 사실과 그렇기에 교회는 전례의 여정을 통해서도 시노드의 여정을 통해서도 구세주 그리스도의 신비 안으로 더욱더 깊고 충만하게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 정상에 섰을 때, 세 명의 제자는 초자연적인 빛으로 찬란한 영광 안에 계신 그분을 보는 은총을 얻습니다. 어떤 힘겨운 등산 중이라도 우리는 그 길만을 올곧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길 끝에 펼쳐지는 광경이 우리를 놀랍게 하며 그 웅장함으로 보답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시노드 과정 또한 종종 힘들어 보이고 때로는 우리를 낙담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틀림없이 멋지고 놀라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 결실이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 나라를 섬기는 우리의 사명을 더욱 잘 이해하도록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타볼 산에서의 제자들의 체험은 변모하신 예수님 곁에 율법과 예언자를 각각 상징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마태 17,3 참조). 시노달리타스 여정 또한 교회의 전통에 뿌리를 두는 동시에 새로움에 열려 있습니다.

사순 시기의 수덕의 여정과 시노드의 여정은 모두 개인과 교회의 변모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르고 그분과 함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두 가지의 ‘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길은 제자들이 타볼 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을 관상할 때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신 명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마태 17,5)입니다. 성경 말씀에 더하여 주님께서 형제자매들,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얼굴과 그들의 사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노달리타스 과정을 위한 상호 경청이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기 위한 교회의 양식과 방법에 언제나 필수 요소입니다.

사순 시기를 위한 두 번째 제안은 일상의 수고들과 어려움, 반대로 점철된 현실을 직시하기 두려워 특별한 사건과 극적인 체험들로 이루어진 종교성으로 도피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시노달리타스 여정 안에서 하느님께서 강력한 친교 체험의 은총을 베푸실 때 우리가 정상에 도착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평지로 내려갑시다. 우리가 체험한 은총으로 우리가 공동체 일상생활에서 ‘시노달리타스의 장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프란치스코



“너는 흠에서 왔으니 흠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라”(창세 3,19)

그리스도의 성혈 흠송 수녀회

사순절(四旬節)은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부활을 기념하며 주님 고난에 동참하며 회개의 삶으로 우리 신앙을 되새겨 보게 되는 의미 있고 은혜로운 기간이다. 사순절 명칭 자체가 ‘40일(라틴어로 quadragesima)’이라는 뜻이다. 40이란 수는 성경 여러 곳에서 상징적인 기간으로 나온다. 예수님께서 공생황을 시작하시기 전 ‘40일’간 광야에서 금식기도를 하셨다. 모세도 시나이산에서 ‘40일’간 금식으로 기도했다.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에 교회는 참회의 상징으로 재를 축복하여 신자들의 머리에 얹는 예식을 거행한다. 머리에 받을 재는 우리들의 이 여정이 수많은 유혹을 거슬러 이겨내야 하는 고난의 길임을 상징하기도 한다.

“너는 흠에서 왔으니 흠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라”(창세 3,19)는 가르침을 깨닫게 해준다. 재는 인간의 죄와 유한성, 인생의 허무와 무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억하여 하느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것을 깨우친다. 재의 예식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태우는 헌신을 통해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때보다도 사순절 동안 인류 구원을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희생의 길을 묵상하며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다짐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325년 니케아공의회 이후부터 지켜온 사순절은 재의 수요일에서 파스카 성삼일 전 40일(사순, 四旬) 기간 동안 지킨다.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유혹을, 죄를 물리치는 명령을, 회개로의 요청의 여정을 통해 치유와 회심(회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사순절은 주님이 겪은 수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금식을 행했다. 금식은 수 세기 동안 엄격히 지켜져 사순절 식사로는 저녁 전에 한 끼 식사만이 허용되었다. 이 규정은 많이 완화되고 14세기에는 금식기도 대신에 절식기도가 행해졌다. 최근 사순절에는 ‘미디어 금식’ ‘장기기증 캠페인’ ‘북한 돕기 모금’ 등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다. 과연 물질이 풍부한 이 시기의 금식과 절제는 무엇인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사순 시기는 겸손하게 낮아지는 때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이웃들을 향해서도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사랑을 따라 내려가는 것이란 사실을 깨닫는 시기입니다.”라고 말씀하신다. 나약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다잡고 회개하여 하느님 사랑+이웃 사랑을 사는 소중한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40일 동안 기도와 단식, 자선을 통해 절제와 희생을 실천하면서 예수 부활을 기다리는 복된 시간인 지금이 바로 은혜로운 때,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느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만족을 위하는 것은 올바른 회개가 아니다. 숨어계신 하느님을 향하는 오늘이 바로 은혜로운 구원의 날이다. 십자가처럼 재와같이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있을 수 없다. 은혜롭고 복된 이 시기에 우리 자아가 껍질을 벗고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변화와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려는 십자가의 시간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정진해야겠다.



좋아서 오고 싶은 곳, 기뻐서 주인 되고 싶은 곳 회원동성당

황광지 가타리나

뜰이 가지런하고 참 예쁜 회원동성당이다. 한겨울인데도 긴 화분에 심긴 알록달록 팬지가 드나드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이게 한다. 넓지 않은 마당이지만, 구석구석 가꾸어 놓은 손길이 훤히 보인다. 그래서 봄을 더 기다리나 보다. 나무에 움이 트고 영산홍이 마구 꽃망울을 터트리면 아름다움을 더하게 될 터이다.

그리스도 가르침을 따르려는 노력

1층 로비 게시판에는 친절한 안내가 시선을 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여라.”(요한 13,34) 말씀과 함께 교구 소식과 본당 소식이 소장하다. 서로 공유하고 뜻을 모으고 사랑을 실천하자는 권유이다.

이 성당 홈페이지 사목 방향에서, 본당 신자들이 실천해야 하는 항목 중 눈에 띄는 것은 ‘소외된 이들 안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고 진심으로 돌보기’이다. 흔하게 말하는 소외된 이들에게서 ‘주님을 알아보는’ 것, 돌보되 ‘진심으로’ 돌보는 것을 강조한다.

회원동본당 주보 1면 ‘열린 교회’란에는 자주 사회 교리의 원리를 실어 함께 가꾸어야 할 우리 사회의 바른 면모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대림 시기 동안에는 북녘동포돕기 모금을 실시했다. 뜻있는 신자들이 사무실에서 자유롭게 모금에 참여했고, 교구의 민족화해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춘수 레오 주임 신부와 힘을 모아 기금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사형제도폐지 입법청원에 대한 서명운동도 전개했다. 결정이 쉽지 않은 신자도 있겠지만, 다양한 사회 문제를 직면하면서 무엇이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지 그리스도 양심으로 동참하기를 당부했다. 공동체를 아우르는 일은 힘든 과정이 있지만, 오시는 주님께 드리는 선물을 성심껏 준비한 것이다.

너도나도 주인정신으로 살기

회원동본당은 1981년 1월 설립되었다. 교방동 화란주택 신자들을 중심으로 열악한 출발이었다. 메리놀외방선교회 배종섭 요셉 신부가 초대 주임으로 부임하여, 처음에는 가톨릭복지회관에서 미사를 봉헌하며 성전 건립에 총력을 기울였다. 본당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던 배 신부가 소임을 다하고 1985년 6월 미국 본회로 귀국한 후에는 마산교구 사제가 사목하게 되었다.

송창수 아나타시오는 상남동에서 영세를 받자마자 회원동 분리라는 과업을 안았다. 어찌다가 기성회장을 맡아 성당 건축에 깊이 관여했고, 3대 사목회장직을 수행하며 신생 본당을 굳건히 하는 데 힘을 보탰다. 그는 당시 화란주택의 4,50명 가난한 신자들이 강당에서 미사를 올리던 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뜨거워진단다.



현 사목회장이 사위이고 결혼한 딸네가 한 성당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크나큰 은총이다. 거기다 몇 해 전, 화가인 그가 그린 성화 몇 점이 성전 2층에 걸려 있다. 이처럼 40여 년 오롯이 몸담고 있으니, 성당에 오는 길이 기쁘고 자랑스럽다. 부회장 강정신 로사는 8년 전에도 부회장을 맡았는데 당시 성전 방화문 설치 등 성전과 외부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다. 걱정이 많았지만 교우들이 십시일반 내놓아 매우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었다. 작년 본당의 날에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신자들이 고맙기 그지없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성실히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성당 사랑방에 앉아 신자들과 차 한 잔 마시며 정을 나누는 기쁨이 크다. 김영환 알폰소는 30년 전 세례를 받았고, 은행 일에 종사한 관계로 재정분과 등에서 줄곧 활동했다. 3년 전 은행을 퇴직하고는 본의 아니게 사무장을 맡게 되었다. 귀촌하여 전원생활을 하고 싶었던 마음을 접고, 이곳에서 능동적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맞이하려 노력하고, 환경을 가꾸는 일에 애정을 쏟는다. 화초를 돌보며 신자들의 눈길과 마음이 행복하게 빛나기를 바라며, 성당이 좋아 퇴근 후에도 자주 기웃거린다. 공동체 모두들 서로 “천사”라고 칭찬하는 말이 익숙한 정다운 사람들이다.

아름다운 본당,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지난해 10월 본당의 날, 한마음 음악회는 공동체를 한마음으로 모았다. 하춘수 신부가 기타연주와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하며 무대를 열었다. 주일학교를 비롯한 단체별 다채로운 합창이 분위기를 살리고, 성악가의 열창으로 수준을 더했다. 그야말로 터널을 지나온 칙칙한 시간을 날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날갯짓이 되었다. 성탄 대축일 밤미사 전에는 거룩한 전례를 복돋우기 위해 3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했다. 음악과 함께하는 묵상으로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절정에 이르도록 이끌었다. 신자들의 뒤 성가대에서 고요한 연주를 들려주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수화공연으로 기도의 시간을 숙연하게 했다.

주임 사제는 교우들의 응집력이 좋아 단합이 잘 된다고 한다. 전례 때에도 성경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이 놀랍다. 선교나 행사 등 목표가 생기면 뭉치고, 동참하려는 의지에 늘 고맙다. 코로나를 극복하는 일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는 주일학교를 복원하는 것에 큰 비중을 두려고 한다. 교리교사 세 명이 초중고 모두를 이끌고 있는데, 이들의 애심으로 아이들뿐 아니라 성인 신자들까지 행복하다. 매일 한 차례는 현장교리를 위해 야외로 나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교회의 미래를 위한 주일학교의 귀중함을 알고, 잘 실행하려 한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살피는 일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라면 신자가 아니라도 찾고,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2월에 개강한 예비자교리도 본당의 중요한 과제다. 주 2회로 교리시간을 늘려, 기간은 3개월로 줄이는 방법을 택했다. 아름다운 계절 5월의 세례식을 기대하고 있다.



기억할 선종 사제



김덕선(요셉) 신부
2018년 3월 1일



석중관(바오로) 신부
1974년 3월 3일



지대건(야고보) 신부
1990년 3월 5일

건진성사

일시: 3월 5일(주일)
장소: 고성성당
집전: 교구장 서리 신은근(바오로) 신부

교구 사목 방문

일시: 2월 28일(화)
본당: 금산/ 장재동

지부장 본당 방문

일시: 2월 28일(화)
본당: 창녕
일시: 3월 2일(목)
본당: 옥포/ 장승포/ 하청/ 거창/ 합천

교구청사 이전

일시: 3월 6일(월)~10일(금)
※교구청 이전 관계로 업무가 중단됩니다.
새 교구청사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현로 72
▶구 교구청사의 명칭은 '가톨릭 문화원'으로
칭합니다.

교구/본당

신앙대학

일시: 3월 4일(토)~5일(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2023년 1학기 교구 성경공부' 교구청 개강 일정
변경 안내

일시: 개강-3월 14일(화) 10:00(마르코 복음서)
3월 7일(화) 교구청 이전 관계로 일정 변경합니다.

위원회/기관/단체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월 1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진주) 평거동성당 10:00
(통영) 태평동성당 10:3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7471·9258

포콜라레Focolare 생활발씀 월 모임

마산: 1주(화) 10:30 교구청
창원: 1주(목) 20:10 사파동성당
진해: 1주(월) 10:00 해군성당
진주: 1주(주일) 15:30 하대동성당
문의: 윤지령(요세피아) 010·4490·6996

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 수어미사 안내

일시: 3월 5일(주일) 15:00/ 장소: 남성동성당
문의: 농아선교회 010·9207·8856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중독),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통영시 보건소 옆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1층)
카페: cafe.daum.net/6407795/ 인스타: tygapok
문의: 055·640·7795/ ★일시보호센터 운영
▶상담내용과 상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216차 ME주말 안내

일시: 3월 24일(금) 19:00~26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혼인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
신청: 전화 및 문자로 접수(문자 발송- 부부 이름
총 연락처, 본당 기재)
문의: 배길우(바오로) 010·2057·3319
안은정(바울리나) 010·4598·7530

기타

프란치스코 전교봉사 수녀회 젊은이 모임

일시 및 장소: 전화 면담 후 결정
대상: 만 39세 이하 가톨릭 미혼여성
문의: 강피아 수녀 010·3679·7198

자비와 회복 50일 여정(가톨릭평화방송 TV 및
유튜브 라이브 방송)

일정: 2월 26일(주일)~4월 16일(주일) 50일간
매일 15:00(재방송 23:00)
지도: 김태광 신부/ 주최: 가톨릭평화방송
교재: 『성모님과 함께하는 자비와 회복 50일
여정』(바오로 출판사)
문의: 담당자 010·4702·9951

'2023년' 성모술술타를 무료 치유대(對)피정

값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
일정: 매월 둘째 주 금~주일 2박 3일
(3월 10일~12일/ 4월 7일~9일/ 5월 12일~14일)
문의: 010·3209·3955

성모술술타를 환자를 위한 치유 소피정

치유 소피정: 3월 18일(토)/ 4월 15일(토)/
5월 20일(토)

●성모술술타를 무료휴양체험

일정: 1주일(3월 18일~23일/ 4월 15일~20일/ 5월 20일~25일)
대상: 환우 및 질환자(우울증 제외)
문의: 010·3209·3955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
www.holyfcac.or.kr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지원
2차 현금 실시

지진 피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원을 위한 2차 현금을 2월 26일(사순 제1주일)에 실시합니다. 각 본당에서는 지진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기도와 자선으로 뜻깊은 사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본당 제10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이동해(베드로)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김동연(안셀모)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김성아(비비안나)
총무분과위원장: 제진호(요한)
재경분과위원장: 윤정(레지나)
전례분과위원장: 허미영(카타리나)
선교분과위원장: 김은희(막달레나)
교육홍보분과위원장: 이상록(사무엘)
구역분과위원장: 정희숙(글라리)
사회복지분과위원장: 박명희(베로니카)
청소년분과위원장: 이승준(요한보스코)
시설분과위원장: 윤영복(유스티노)
가정분과위원장: 이복임(알로이시아)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2월 27일(월) 19:00	중앙동성당	모든것이 은총입니다.	장재봉 스테파노 신부(부산교구)		010·5247·9900
진주지구	2월 27일(월) 19:00	신안동성당	성령의 도우심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병례성지 담당)		010·3846·1980
청년	매주 (수) 19:30	교구청 별관 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20:00 기도회(1주: 미사, 3주: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성골롬반외방선교회	3월 5일(주일) 10:00	서울 본부(동소문로)	korvocation@columban.or.kr	대상: (만)19세~35세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타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스페인 산티아고 9박 10일
4월 11일 & 5월 15일/ 375만원

■이집트&이스라엘 11박 12일
4월 16일/ 475만원

Bra(주)보나투어 02-732-4578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래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절,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대성익전 경남장묘컨설팅

신소 이장·무연고·장익 120만원
010-4848-9944

마산회원구 회성남 18길 2, 1층(회성동)
김종운(클레멘스)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그들은 우리들의 파랑새였다

김용철 스테파노 시인/ 가톨릭문인회

가희, 민영, 민지, 은경, 주환, 미현, 수정, 경엽, 단이, 도은, 동규, 미정, 미주, 보미, 산하, 선영, 세라...

파랑새의 이름들은 꽃처럼 별처럼 예쁩니다. 불러도 불러도 예쁘고 들어도 들어도 아름답고 아까운 이름들입니다. 누군가가 고심해서 지어준 이름이고 누군가의 가슴에서 꺼내어준 이름들입니다. 앞선 세대의 한스럽고, 가난을 떨쳐내기 위하여 지은 이름이 아니라 그냥 예쁘고 곱고 희망찬 우리 미래를 짊어질 새 세상의 이름들입니다.

희망차고 밝고 고운 이름들... 슬기, 예은, 유나, 의진...

다시는 적지도 부르지도 말라는 이름들... 정훈, 주환, 지현...

우리들의 파랑새는 그렇게 지워져 갔습니다. 왜 지워져야 하는지, 왜 올 수도 없었는지도 모른 채 기성인의 잘못된 판단과 서투른 과오들로 인해 함께 묻혔습니다. 이유 없이 짓밟히는 풀잎처럼 다시는 필 수 없는 꽃이 되어 먼 세상의 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의 문화를 갈망하고 어떤 선택된 종교에 매료되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곳에는 젊음이 있고 웃음이 있고 우리들이 있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재잘거리고 그래서 만나고 싶고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새들은 모여서 노래하듯이 말입니다.

아이들은 서랍 속 깊은 곳에 숨겨 두었던 용돈을 꺼내어 세어 보면서 말합니다. “엄마! 나, 친구들이랑 서울 구경 한번 갔다 올게”라며 오만 원만 보태어 달라고 애교부리며 졸랐던 아이들은 그렇게 기성세대가 파 놓은 서투른 안전 대책과 미련한 판단을 믿었다가 이유 없는 죽음이 되어야 했습니다. 숨 막혀 퍼덕이다가...

묵상하며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다 나열하지 못한 아름다운 이름들과 사고의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과 그 가족 모두에게도 사죄의 깊은 마음으로 위로와 평화를 올립니다.

지난해 10월 29일은 155명의 파랑새가 이태원 골목길에서 짓눌린 가슴을 부여잡고 그렇게 도와 달라고 날 기다리는 엄마, 아빠께 돌아가야 한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끝내 울음을 토해내지 못했습니다. 전파를 타고 온 사고의 소식에 아연실색하며, 제발 만우절 거짓말 같은 것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가을의 참사는 무서운 사실이었습니다.

참회의 사순절을 맞으며 다시 머리를 조아립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우리들의 파랑새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가슴에조차 묻지 못하고 여전히 아픔과 냉기를 붙들고 통곡합니다. 저는 나약한 인간이라서, 무얼 어찌지 못해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참회하게 하소서.

당신의 뜻을 깨달아 평화를 노래하는 세상이 되게 하소서.



판관 드보라(판관기 4장)

김영선 루시아 수녀/ 광주가톨릭대학교

판관 에훗과 더불어 시작되었던 평화의 시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숭배의 유혹에 빠졌고, 그 결과 하초르를 다스리는 가나안 임금 야빈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철 병거 구백 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20년간 이스라엘을 심하게 억압하였습니다. 판관들의 시대는 철기 시대 초기이므로, 야빈이 철 병거를 가졌다는 것은 철기를 제작할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철기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사울이 임금으로 등장한 이후인 것으로 보입니다. 1사무 13,19-20에 따르면 사울 임금 당시에도 이스라엘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어서 보습이나 곡괭이를 버리려면 필리스티아인들에게 가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야빈 임금의 장수는 하로셋 고임에 사는 시스라였습니다.

드보라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드보라라는 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라피돗의 아내이자 여예언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재판을 받으러 드보라 야자나무 아래로 가곤 하였습니다. 이 야자나무는 에프라임 산악지방인 라마와 베텔 사이에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드보라에게 주신 구원신탁은 납탈리의 케데스에 사는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에 관한 것으로, 납탈리와 즈불론 지파에서 군사 만 명을 소집하여 타보르산으로 행군하면 하느님께서 야빈의 군대 장수 시스라와 그의 병거대와 그의 무리를 키손천으로 끌어내어 바락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드보라가 이 행군에 함께하지 않으면 자신도 가지 않겠노라고 버팁니다. 그러자 드보라는 자신이 함께하겠지만 이 전쟁의 영예는 바락이 아니라 한 여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케데스로 갔고, 바락은 즈불론과 납탈리 지파에서 군사 만 명을 소집하여 타보르산쪽으로 행군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스라는 철 병거 구백 대와 전군을 이끌고 키손 천으로 향하였습니다. 오늘 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날이라는 신탁을 드보라에게서 들은 바락은 군사들을 이끌고 타보르산에서 내려갔습니다. 주님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셔서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 도망을 쳤고, 시스라의 온 군대는 몰살 당하고 말았습니다. 시스라는 야

빈 임금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던 카인족 헤베르의 천막 쪽으로 달려갔는데, 이때 야엘이 그를 보고 천막 안으로 맞아들여 우유를 마시게 하고 담요로 덮어 주었습니다. 그가 지쳐서 잠들었을 때 야엘은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고, 그의 시신을 바락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야빈의 억압에서 벗어났고, 결국에는 그를 멸망시키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초르 임금 야빈의 멸망은 여호 11,1-10에서도 보도되는데, 판관기 4장의 보도와는 차이가 납니다.

한편 판관기 4장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철 병거대를 이끄는 야빈의 군사령관 시스라와 군사 만 명을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수 바락은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강력한 인간적인 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와 대조되는 여예언자이자 판관인 드보라와 시스라를 죽인 평범한 여인 야엘은 인간적인 힘과 능력의 측면에서 보면 그들에게 비할 바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승리는 바로 이 연약한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능력주의를 내세우는 현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연약한 여인들을 영웅으로 내세움으로써 인간적인 힘과 무력武力을 조롱하며, 그것에 의존하려는 자세를 비난하는 효과를 자아냅니다. 과연 구원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는 무엇에 의존하려 합니까? 하느님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수단이나 힘입니까?

교구청 신축공사

드디어 교구민들과 봉헌자들의 기도와 협조 속에 교구청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건축물 사용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마무리하였고, 각종 전례용품과 사무가구를 설치하였으며, 준공청소도 하였습니다. 광장에는 스피릿블럭을 쌓아 그 곳에 성모상을 설치하고, 잔디도 심었습니다. 도로와 주차장 설치, 아스콘 포장 작업, 기타 토목공사, 주변경관을



신축교구청 전경



성전 스테인드글라스 설치

위한 나무와 꽃을 심는 조경공사도 마무리하였습니다.

새 교구청 이사는 3월 7일(화)이며, 교구청 봉헌식은 5월 4일(목)에 할 예

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하느님, 그리고 도와주신 교구민과 봉헌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교구청 신축기금 봉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간: 2022.12.16.~2023.1.31. ▶ 총액: 379,622,858원

1. 사제

성명	금액	성명	금액
김국진(2차)	1,000,000	채동호(2차)	2,000,000
김형렬(19차)	200,000	허성규(1차)	4,000,000
이강현	4,800,000	익명1(3차)	2,800,000
이상록(20차)	400,000	익명2	4,800,000
장병욱(4차)	1,200,000	익명3	5,000,000
정연우(2차)	2,000,000	계	26,200,000

3. 교구 내 개인

성명	금액	성명	금액
노양춘	1,500,000	조준영	1,000,000
이용갑	5,000,000	최명희	500,000
정형석	400,000	익명(팔용동)	100,000
계			8,500,000

6. 본당 계 308,728,264원

■ 가음동 11,445,000원

- 완납: 권기욱(베네딕도), 김덕성(안드레아), 김성애(로사), 김승용(루피노), 박재규(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박종근(요셉), 박중현(라파엘), 박찬일(베드로), 손신자(테레사), 양홍석(요한보스코), 유현근(미카엘), 이성애(테레사), 이운하(요한), 이정미(프란체스카), 이현수(아우구스티노), 이혜숙(로사), 최홍규(시몬), 최화순(유스티나), 이필순(안나)
- 분납: 김진혁(루도비코), 김해수(아타나시오), 선정열(안토니오), 엄현용(가브리엘), 이영은(베로니카), 정혜진(베로니카)

2. 교구 내 기관, 시설, 단체

명칭	금액
(주)정명엔지니어링	20,000,000
창원늘푸른신용협동조합	10,000,000
천사의 집 가족 일동	464,000
계	30,464,000

4. 개인(교구 외) 계 3,170,000원

김정선, 남경애, 류준열, 박기선, 박영호, 백호명, 신승철, 이동구, 임정순, 정현호, 조화신, 한미숙, 한행자, 황정철

5. 해외 계 2,960,594원

LA 성삼 한인천주교회 본당 공동체

▶ 기간: 2022년 12월 1일~2023년 1월 31일

■ 거제 3,750,060원

- 완납: 엄필순(헬레나), 이한규(토마스)
- 분납: 김명수(베드로)
- 추가: 이주학(마르코), 이대영(마르첼리노), 정극성(안토니오)

■ 거창 7,818,289원

- 분납: 광종권(라파엘), 김규태(프란치스코), 김수정(젤푸르다), 김양희(마리아고레티), 김왕출(미카엘), 김정태(마르코), 박동운(마태오), 박동진, 박성조(야고보), 백승운, 오분순(카타리나), 오

정열(바르톨로메오), 윤순의(에스텔), 이규빈(엘리사벳), 이명기(안젤라), 이민자(글라라), 이영자(말가리다), 이영환(안드레아), 이의준(토마), 이이만(수산나), 이정환(힐라리오), 이중일(마태오), 이천두(프란치스코), 정지수(테오도로), 조현목(미카엘), 홍화순(로사)

■ 경화동 4,615,000원원

■ 고성 9,540,000원

■ 구암동 5,285,000원

- 완납: 김경옥(데레사), 김동석(요아킴), 김돌란(막달레나), 김성란(루치아), 김옥선(크리스티나), 김점이(카타리나), 김태경(실베스텔), 류관대(대건안드레아), 문창옥(갈디노), 박남조(프리스라), 박오동(미카엘), 배영자(수산나), 안금자(크리스티나), 안상덕(다니엘), 이선홍(요셉M.P), 이준선(글라라), 이학송(안드레아), 조항임(스텔라), 홍미애(미리암), 황효숙(마리아), 강명옥(엠마)

■ 금산 1,554,617원

- 완납: 방호구(토마스), 성인기(베드로), 유향자(프란체스카), 이귀재(가브리엘), 전해양(라파엘), 진영인(레오)

■ 남성동 1,890,000원

- 완납: 광옥순(수산나), 김정숙(데레사), 김태연(루시아), 박경숙(데레사), 신소자(아가다), 정경숙(카타리나), 최호영(스테파노)
- 분납: 신광순(발렌티노), 이지현(프란체스카), 최형두(다니엘)

■ 대방동 9,950,000원

- 완납: 강민정(플로라), 고신철(야고버), 광오레(살로메), 김기수(요한), 김민수(마르첼리노), 김순임(세레나), 김연숙(데레사), 안성운(미카엘), 원진섭(베드로), 유정숙(요안나), 이영훈(바오로), 장주택(이시도르), 전영배, 정윤미(글라라), 최봉수(베드로), 한호연(베드로)
- 분납: 김서현(안나), 류상민(스테파노), 이중해(요한), 이주형(요한), 전상조(요셉), 전석만(베드로), 진우영(스테파노), 천무환(세례자요한), 최영목(안토니오), 한미영(세실리아)

■ 덕산동 8,870,000원

- 분납: 강민채(체칠리아), 강치구(아브라함), 광순희(라파엘라), 김광수(요한F.레지스), 김규봉(갈리스도), 김진환(안셀모), 박동진, 손우식, 송병영(다니엘), 신숙(말가리다), 심정현, 우은주(베로니카), 유영숙(모니카), 이명미(바울리나), 이정금(벨라데타), 최미자(릿다), 최영명(베드로), 최우진(올리아노), 최정남(루갈다), 허정자(로사), 황금숙(가타리나), 김혜자(루치아), 신숙(말가리다), 유영숙(모니카), 이재홍(이나시오), 장병석(세례자요한), 익명 1명

■ 망경동 2,860,000원

■ 명서동 14,430,000원

- 완납: 강봉수(요셉), 김예빈(엘리사벳), 김필옥(로사리아), 김혜영(요셉피나), 김화영(로사리아), 박경규(안드레아), 박진숙(마리아), 변희철(베네딕도), 서정희(안나), 안영훈(일루미나토), 여주환(베드로), 원영우(베드로), 유성용(사무엘), 윤희성(요셉), 이말수(베드로), 이박미(레지나), 이영기(가브리엘), 이용근(안드레아), 이진호(비오5세), 장병렬(블라시오), 정지송(요한), 정지훈(요셉), 조매자(아가다), 조미연(에메렌시아나), 조

순동(엘리사벳), 주내(하상바오로), 최성국(요한보스코), 최옥희(루시아), 최은순(정혜엘리사벳), 최정애(카타리나), 최정환(알비노), 하복희(마리아), 허기영(다니엘), 홍금자(가타리나)

- 분납: 강지현(베로니카), 고민정(안젤라), 김영희(막달레나), 김은선(아네스), 김태근(요한), 문상숙(올리아), 박은지, 박재우(안젤로), 서상우(요셉), 이미란(세실리아), 이상수(베네딕도), 이의렬(대건안드레아), 이종란(로사리아), 장지수(요셉), 전운경(세실리아), 전진영(스텔라), 정동열(미카엘), 최기은(살레시오), 하연금(요셉피나), 현기학(바오로), 황장미(마리아)

■ 문산 9,490,000원

■ 반송 14,000,000원

- 완납: 강영태(스테파노), 강태선(마리아), 광승희(아네스), 구본승(베드로), 구형준(알폰소), 김경태(요셉), 김동인(발렌티노), 김명현(아론), 김언우(아웁실리아), 김장욱(프란치스코), 김태현(루치오), 남시완(시몬), 박금희(에스터), 박수빈(요한), 박영규(안드레아), 박영동(펠릭스), 박장실(베네딕도), 박찬복(유스티노), 박찬현(시몬), 백종철(디모테오), 서현아(아네스), 송정애(글라라), 안승구(프란치스코), 여정환(루도비코), 오동규(알베르토), 유영자(마리아), 윤여용(요한), 이여옥(안젤라), 임화자(데레사), 장환수(토마스아퀴나스), 정숙자(로사리아), 한정란(데레사), 황경란(헬레나)
- 분납: 강석진(요한), 김광성(바실리오), 김국태(프란치스코), 김원길(요한), 김인숙(필로메나), 김준형(라파엘), 김환(그레고리오), 박종은(라우렌시오), 송수섭(가브리엘), 안승득(토마스), 이현재(니콜라오), 이효경(요한보스코), 임길섭(니콜라오), 조덕환(빈첸시오), 조성일(헬미네질도), 차경섭(베드로), 하정화(아가다)

■ 복신동 1,800,000원

- 완납: 강태연(클라라)
- 분납: 김예준(미카엘), 강현주(로사), 한승지(카롤로), 김희연(마르첼리나)

■ 사림동 2,265,000원

- 완납: 권혁도(요한), 김진권(도미니코), 박무훈(요한보스코), 허윤석(라우렌시오)
- 분납: 강순희(레지나), 강승우(베드로), 김순희(레지나), 김양조(왈브르카), 김윤경(베로니카), 문영숙(킨니아), 박민용(안토니오), 방승태(요한), 이승훈(베드로), 이정태(요한), 정순녀(엘리사벳), 조정래(안토니오), 조임숙(아네스), 최광선(로즈마리)

■ 사천 3,630,000원

- 완납: 박금주(라파엘라), 박도개(안토니오), 박우주(파치아노), 이동규(요셉), 이호준(아만시오), 제종원(프란치스코)
- 분납: 강기갑(로벨도), 권영선(마리나), 노승주(사도요한), 박중명(미카엘), 안숙연(마리아), 오남영(마리아), 이미자(실비아), 이한국(베드로), 정진옥(라우렌시아)

■ 사파동 26,340,000원

- 완납: 권철현(요셉), 김동연(요한금구), 김민화(모니카), 김정환(파비아노), 김진협(바오로), 김현순(안나), 박근아(마리아나), 박선희(마셀라), 박성화(바오로), 박정옥(프란치스코), 박주호(요한), 박치훈(히지노), 성익경(안드레아), 송재웅(미카엘), 윤영규(미카엘), 이기완(이나시오), 이명진(비르짓다), 이성수(유스티노), 이승현(사도요한), 이영선(레오), 이해숙(골롬바), 임재동(레오), 장희정(도미니카), 천광선(히야친타), 천병석(라자로), 함미경(크리스티나), 법무법인 뉴탑(노

갑식 아우구스티노)

- **분납:** 고순배(스콜라스티카), 김길호(다마소), 김대수(안드레아), 김승언(알베르토), 김형철(베네딕토), 김혜진(카타리나), 박상인(요셉), 박선욱(베드로), 박창욱, 박형근(마르코), 박희지(빈첸시오아바울), 이동엽, 이유홍(요한), 정재익(도미니코), 정종화, 최도홍(요한), 하해수(안드레아), 황성진(바오로)
- **추가:** 김채원(아네스), 김태엽(요셉), 박원기(바오로), 최학련(베네딕다)

■ 삼계 2,600,000원

- **완납:** 고대현(안토니오)
- **분납:** 김희정(미카엘라), 박균식(시몬), 박재순(글라라), 양성환(라우렌시오), 이진자(보나), 이지혜(임마쿨라타), 허미영(카타리나)

■ 삼천포 3,180,000원

- **완납:** 강갑순(율리아), 김인순(엘리사벳), 김혜림(헬레나), 박종권(요셉), 신일철(F,살레시오), 임진자(도미니카), 전희주(요셉), 정재웅(요셉), 최경임(사비나)
- **분납:** 강현(요셉)

■ 상남동 1,925,000원

- **완납:** 김부우(바오로), 배인숙(레지나), 배재성(파비아노), 오미숙(안젤라), 장혜옥(루시아), 황서분(마리아)
- **분납:** 김수학(비오), 박신석(바오로), 박희조(요셉), 안병영(라파엘), 윤필레(테레사), 이상욱(토마스), 장자림(마리스텔라)

■ 생림선교 3,650,000원

- **완납:** 권희자(엘리사벳), 김상순(엘리사벳), 서현주(유리안나), 손영순(안젤라_타교구), 정숙희(요셉피나), 하택용(베드로)
- **추가:** 김영두(스테파노), 박미덕(모니카), 박선자(율리안나)

■ 석전동 1,240,000원

- **완납:** 박동철(스테파노)
- **분납:** 윤미숙(루치아), 윤미애(안젤라), 이종연(미카엘)

■ 수산 700,000원

- **완납:** 익명 1명
- **분납:** 이경호(베드로), 이지명(루시아), 차용인(요한)

■ 신반공소 400,000원

■ 안의선교 1,950,000원

- **완납:** 박해영(레오), 유복래(요안나), 이봉춘(다미아노), 이옥경(크리스티나), 정종화(바오로), 정현호(알렉산델), 최윤정(소화 테레사)
- **분납:** 박진규(바오로), 안윤자(체칠리아), 유철중(야고보), 정영미(모니카)
- **추가:** 박금순(수산나), 송성순(세실리아), 장은애(루치아)

■ 양곡동 2,870,000원

- **완납:** 강선희(멜라니아), 송명옥(돌로레스), 조성순(로사), 최영철(요한), 신평자동차정비주식회사
- **분납:** 이태복(요한)

■ 양덕동 2,776,932원

- **완납:** 김군자(스텔라), 이성수(가타리나), 이영훈(안드레아), 황선미(로사), 황정현(마리아), 황정혜(로사리아), 익명 1명
- **분납:** 김기덕(안토니오), 김춘자(헬레나), 김현재(Y.로올라), 박덕이(소피아), 전정은(요셉피나), 주지순(안젤라), 익명 1명

■ 여좌동 5,924,000원

- **완납:** 구창희(발라바), 권순정(아네스), 김귀매(루시아), 김소순(아폴리나), 박말순(젼마갈가니), 박순자(율리아), 박정갑(요셉), 백인성(다미아노), 이금재(베네딕다), 전현성(에스텔), 홍정숙(루시아), 황인성(골디아노)

■ 옥포 6,190,000원

- **완납:** 권영순(마리아), 권태민(미카엘), 김계순(모니카), 김민경, 김상호(실바노), 김상훈(가롤로), 김소영(M,미카엘라), 김옥란(비비안나), 남성미(가타리나), 윤계선(테레사), 이동희(안젤라), 이준규(요셉), 이준호(베드로), 이진영(글라라), 장수선(M,막달레나), 전대영(베드로), 주정연(베드로), 최태주(요안나)
- **분납:** 김정순(아네스), 김중배(시몬), 남주희(아가다), 박순이(안젤라), 정유섭(토마스), 진진옥(요한), 홍영희(루시아), 천성민(요셉), 최병철(스테파노)

■ 완월동

- **완납:** 김민경(미카엘라), 조덕제(글레멘스), 이강문(요셉), 최영민(요셉), 황옥자(수산나)
- **분납:** 강말순(헬레나), 강호경(안드레아), 박희자(클라우디아), 이우정(크리스티나)

■ 용원 520,000원

- **완납:** 이인선(테레사), 김민정

■ 용잠 5,670,000원

- **완납:** 김경섭(스테파노), 박영순(테레사), 박영진(릴리안나), 신영자(베로니카), 황희순(다시아나)

■ 월남동 14,000,000원

■ 월영 10,290,000원

- **완납:** 강승엽(여호수아), 강정이(빅토리아), 김묘진(스텔라), 박경희(로사), 신경훈(마리아), 안영애(세실리아), 안은주(헬레나), 유동훈(스테파노), 이경숙(크리스티나), 이성열(도미니코), 이인주(체칠리아), 장윤희(수산나), 장용걸(알베르토), 조성진(아드리아노), 하점숙(루시아), 한동은(스테파노), 허은주(테레사)
- **분납:** 강나리(아니시아), 강도금(레지나), 강태규(미카엘), 강화정(테레사), 강희숙(스텔라), 곽철윤(요셉), 권기호(루시아), 권상태(비오), 김계수(즈가리아), 김근규(프란치스코), 김문환(리노), 김민기(루치오), 김현숙(세실리아), 김현주(크리스티나), 김희자(안나), 노수영(모니카), 민현주(헬레나), 박분선(카타리나), 박희정(엘리사벳), 이승준(그레고리오), 이승진(그레고리오), 이영희(베르디아나), 장은실(벨라멧다), 정마리아(마리아), 정순덕(모니카), 조순옥(엘리사벳), 조현철(바오로), 최성황(펠릭스), 최영수(안드레아), 최옥환(루치오), 허성배(프란치스코), 홍숙경(사비나), 황주연(아모스), (주)민들레 생각

■ 의령 2,100,000원

- **완납:** 이승훈(베드로), 송철구(레오), 허로민(마리스텔라)
- **분납:** 강용전(가스발), 김도연(바오로), 오경주(라파엘라), 이승훈(베드로), 허로민(마리스텔라)

■ 장동 1,380,000원

- **완납:** 김영애(다리아), 노종수(요셉), 이춘희(베로니카), 이희근(미카엘), 정영자(실비아), 정인석(시몬), 이수일(비리버)

■ 장재동 2,360,000원

- **완납:** 정동진(미카엘)

■ 장평 2,530,000원

- 완납: 서진원(바오로), 윤현경(안나), 이혜숙(말가리다), 전미영(젼마), 채태영(베드로)
- 분납: 김재욱(야고보), 배현근(바오로), 최선화(비비안나)
- 추가: 김태한(가밀로), 정연환(안토니오), 제경욱(안토니오)

■ 중등 17,525,000원

- 완납: 강성관(도미니코), 강성란(수산나), 강세중(가를로르가왕), 강은주(스테파니아), 강혜희(엘리사벳), 고귀임(제노베파), 고영호(필립보네리), 김돌순(비아), 김몽상(마태오), 김석규(야고보), 김영지(안나), 김유형(세실리아), 김차임(아나니아), 박성재(세례자요한), 송인선(마리나), 이경애(가브리엘라), 이은주(율리아)
- 분납: 김덕근(프란치스코), 남광욱(미카엘라), 윤서현(요아킴), 이두선(안젤라), 이만호(아브라함), 임영호, 전재욱(안젤로), 최동넉, 최재호(펠릭스)

■ 중앙동 9,108,000원

- 완납: 김성진(도미니코), 김정옥(도미니카), 박진혁(안드레아), 배해수(다시오), 신우일, 오완숙(마리아), 이영구(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이인수(다미아노), 이일수(가브리엘), 이자형(다미아노), 이지홍, 이창호(시몬), 이현준(세비스찬), 황필옥(글라라)
- 분납: 김수관(루비노), 백승재(미카엘), 안효주(엘리사벳), 최근현(토마스아퀴나스), 한충남(시몬)

■ 지세포 1,300,000원

- 완납: 강병철(유다 타대오), 고영란(베로니카), 서미순(보나), 이돌순(테레사), 하효주(요안나)
- 분납: 박영규(에벤시오), 이창근(안드레아), 임종훈(요셉), 장시연(아브라함)
- 추가: 강명옥(미리암)

■ 진교 1,010,000원

■ 진동 4,810,000원

- 완납: 김말레(마리아), 김말순(안젤라), 김이근(율리아노), 문희(요한), 신나리(아네스), 신혜은(글로리아), 안병한(가롤로), 한수선(안나)
- 분납: 이정길(토마스), 전점순(나타리나), 황정환(베드로)

■ 진례 3,650,000원

- 완납: 구정순(글라라), 김태배(시몬), 김은숙(테레사), 김형식(마티아), 남지원(소피아), 이동규(요아킴)
- 추가: 김연이(사라)

■ 진영 5,410,755원

- 완납: 권지완(제랄드), 김경순(율리아나), 김병찬(베드로), 노경민(엘라), 박정희(안나), 박풍자(엘리사벳), 서원미(엘리사벳), 송승환(바실리오), 송종식(율리아노), 신성철(안토니오), 양상욱(마태오), 양재연(젼마), 이경숙(로사), 이석규(알로이시오), 이장선(요한), 전영석(디모테오), 허정진(요셉)
- 분납: 임순자(안나), 김수천(스테파노), 배해경(미리암), 윤주국(알로이시오)
- 추가: 정용경(골롬바)

■ 창녕 180,000원

- 완납: 이근우(안드레아), 이지민(카타리나), 황미정(미리암)

■ 칠원 2,050,000원

- 완납: 박상섭(요셉), 박수용(가부리엘), 신승기(라파엘)
- 분납: 익명 1명

■ 태평동 10,000,000원

■ 팔용동 2,470,000원

- 완납: 김서용(마태오), 김정연(젼마), 김종길(미카엘), 방준범(알렉산델), 오화선(요안나), 조명래(토마스아퀴나스), 진창락(하상바오로), 황시진(누갈다)
- 분납: 권효정(레지나), 박지원(제노베파), 백금선(아나스타시아), 허원(요한)

■ 평거동 2,680,000원

- 완납: 김순희(안젤라), 김윤분(아네스), 박만춘(펠릭스), 신연주(세실리아), 엄성웅(아타나시오), 조인호(바오로)

■ 하대동 250,000원

- 완납: 김덕순(글로리아), 황두원(요한)

■ 하청 2,765,000원

- 완납: 김규란(테레사), 김동우(요한), 김태우(가브리엘), 김혜경(산차아), 신혜연(루칠라), 여영덕(안드레아), 이근우(이레네오), 윤정옥(엘리사벳)

■ 함안 4,704,611원

- 완납: 남기종(안드레아), 신귀희(로사), 안영란(글라라), 안홍준(시리노), 이나현(안젤라), 이찬중(바오로), 정성래(에데시오), 조영규(다니엘), 천유진(요셉피나), 황영순(마리나)
- 분납: 박영순(마리아), 안미울(카타리나), 안상식(안드레아), 이미호(베네딕토), 정승희(안젤라), 정영봉(레오)
- 추가: 김상태(루카), 이진희(에스텔)

■ 함양 2,960,000원

- 완납: 김용국(야고보), 김용택(요한), 이미숙(세실리아), 하경완(요셉), 노경환(이나시오)
- 분납: 김명선(노아), 양희순(루시아), 이정호(가스발), 장길섭(바오로), 오준영(요셉)

■ 합천 5,060,000원

- 완납: 김아영(프란치스코), 김종남(테레사), 박시연(히야친파), 이영숙(모니카), 이옥선(요셉피나), 장문경(베로니카), 전병춘(실바노)

■ 호계 1,900,000원

- 완납: 김유섭(프란치스코), 박판도(가브리엘), 윤승준(요한), 조윤정(베로니카), 조훈(토마스)

■ 회원동 3,490,000원

- 완납: 고경수(레지나), 김송일(세라피노), 김창순(스텔라), 김천일(베네딕토), 박성민(바오로), 박진혁(안드레아), 박태문(레미지오), 방영희(릿다), 윤희순(요셉피나), 이승희(아네스), 장양만(야고보), 정점옥(베레나), 최서희(프란치스코)
- 분납: 정정자(테레사), 홍덕순(테레사)

천주교 마산교구청 신축 추진위원회

T. 055•249•7121